

빈곤심도별 빈곤 결정요인 비교: 극빈층과 일반빈곤층을 중심으로

손 병 돈
(평택대학교)

본 연구는 빈곤정도에 따라 극빈층과 일반빈곤층을 구분하여, 극빈층과 일반빈곤층의 내부 구성의 차이 및 그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고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수집한 '2006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다항로지 분석을 주요한 분석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우리 사회의 빈곤 규모가 매우 크고, 빈곤의 심도도 매우 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할 때, 빈곤율은 무려 24.1%에 달하였고, 소득이 시장 중위소득의 25% 미만을 극빈층으로 규정할 때, 극빈층 비율은 11.8%에 달하였다. 둘째 극빈 여부와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부분적으로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빈곤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노인가구주 여부, 가구주의 혼인상태 변수는 극빈 여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주의 학력, 취업가구원수, 가구주 경제활동상태 등의 노동 관련 변수는 빈곤여부 및 극빈 여부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극빈층과 일반 빈곤층을 구별하는 요인으로는 노인가구주 여부, 장애나 만성질환가구원수, 취업가구원수,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노인가구주이며 장애나 만성질환가구원이 많을수록, 취업가구원이 적을수록, 상용직보다는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일 때, 일반빈곤층과 비교하여 극빈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용어: 극빈층, 일반빈곤층, 빈곤의 심도, 다항로지분석, 빈곤결정요인

본 연구는 2007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연구보고서인 2006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보고서 (이봉주 외, 2007)에 포함된 "빈곤심도별 내부구성과 결정요인"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되었다.

■ 투고일: 2010. 3. 29 ■ 수정일: 2010. 4. 26 ■ 게재확정일: 2010. 5. 1

I. 서론

우리 사회의 빈곤상황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빈곤상황과 관련한 특징 중의 하나는 빈곤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중위 시장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을 보면, 1996년 9.5%, 2000년 14.5%, 2003년은 18.2%, 2006년은 19.3%로 지난 10년간 거의 10% 포인트나 증가하였다. 이처럼 빈곤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을 뿐 더러, 빈곤의 심도도 더욱 깊어졌다. 중위소득의 20% 미만을 극빈층으로 규정할 때, 극빈층의 규모는 1996년 1.3%로, 전체 빈곤인구의 13.7%였는데, 2000년에는 2.9%로 전체 빈곤인구의 20.0%, 2003년에는 5.7%로 전체 빈곤인구의 31.3%, 2006년은 7.5%로 전체 빈곤 인구의 38.9%로 증가하였다(이현주 외, 2006). 이처럼 지난 10년간 빈곤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빈곤의 심도도 더욱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사회의 빈곤상황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최근 우리사회의 빈곤상황과 관련한 대표적인 특징으로 지적되는 것이 빈곤의 여성화, 노인빈곤층의 증가, 근로빈곤층의 증가 등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여성가구주 가구가 크게 증가하여 왔으며,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도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이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석재은, 2004). 이와 함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의 절대다수가 빈곤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현수 외, 2003; 홍백의, 2005; 구인회 외, 2005). 이러한 전통적 취약계층의 빈곤증가와와는 다른 경향인 근로빈곤층의 증가도 최근 우리사회 빈곤의 또 다른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다.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근로빈곤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IMF 경제위기 이후 취업자의 빈곤율이 대략 10% 내외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김교성 외, 2006; 홍경준, 2005).

이처럼 우리사회의 빈곤상황은 규모와 심도면에서 최근 크게 악화되고 있으며, 내부 구성도 더욱 복잡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빈곤층을 빈곤이라는 단일 범주로서가 아니라 빈곤층 내부 구성의 이질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빈곤층 내부의 이질성은 노인 빈곤, 여성빈곤, 근로빈곤과 같이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빈곤의 이질성을 접근하는 연구들은 많이 있다. 하지만, 빈곤의 심도 즉 빈곤의 심각성 정도라는 측면에서 빈곤 집단의 이질성을 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빈곤 정도가 극히 심한 극빈층과 비교적 빈곤 정도가 덜한 빈곤 집단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구성이 동일한지 아니면 상이한지 등 빈곤정도에 따른 빈곤집단의 내부구성에 대하여 밝혀진 바도 없다. 빈곤 정도별로 빈곤 집단의 내부 구성이 상이한가 아니면 동질적인가에 따라 빈곤대책은 상이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우리사회의 빈곤층이 빈곤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구성 되어 있으며, 빈곤의 정도에 따라 그 결정요인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함의를 찾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다시 말하여 본 연구는 빈곤층을 빈곤의 심각성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빈곤 정도가 극히 심각한 극빈층과 보다 덜 심각한 일반 빈곤층으로 구분하고, 두 집단간 내부 구성의 차이와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II. 기존 연구 검토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는 빈곤의 정도 및 규모와 관련한 연구와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먼저 빈곤의 정도 및 규모와 관련한 연구들을 보면, IMF 경제위기가 우리사회의 빈곤 추이에 커다란 전환점으로 작용하면서, 그 이후 빈곤의 규모 변화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 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IMF 전후 시기 빈곤율 비교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한 연구 중에서 구인회의 연구(2004)는 1991, 1996, 2000년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3개 년도의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준절대빈곤율을 비교하고 있는데, 모두 1991년에서 1996년 기간에는 빈곤율이 하락하였고, 2000년에는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용, 강석훈, 김태완의 연구(2002)도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 1996과 2000'년 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생계비를 이용한 절대빈곤율과 중위소득의 40%와 50%를 빈곤선으로 이용한 상대빈곤율을 가지고 IMF 경제위기 이전인 1996년과 2000년의 빈곤율을 비교하고 있는데, 절대빈곤율은 1996년 3.16%에서 2000년에는 9.42%로 무려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기준)도 1996년 11.1%에서 2000년 15.7%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IMF 이후 우리 사회에서 빈곤율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은 도시가

계조사 등 다른 실증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김교성, 2002, 2003).

이처럼 IMF 이후 크게 확대된 빈곤규모는 최근에도 유지 내지 확대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현주 외(2006), 강신욱 외(2006), 김교성(2007)은 IMF 이전시기부터 최근까지의 빈곤추이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이현주 외(2006)와 강신욱 외(2006)는 통계청의 1996년,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와 200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생활실태조사 자료, 통계청의 2006년 상반기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4개년도의 빈곤율을 비교하고 있는데, 분석기간 동안 절대빈곤율 및 상대빈곤율 모두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인 2006년 상반기의 경우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율이 16.37%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강신욱 외, 2006). 김교성의 연구(2007)는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자 가구 대상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을 1995년에서 2005년 까지 분석하고 있는데, IMF 이전인 1997년의 빈곤율은 7.9%이었는데, 가장 최근인 2005년에는 11.6%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빈곤 규모는 IMF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도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 연구들은 빈곤의 규모 증가와 함께 빈곤의 심도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빈곤심도는 주로 빈곤갭 비율과 욕구-소득비(income-to needs ratio)를 통해 보여 준다. 김교성의 연구(2007)는 1997년 도시근로자 가구 빈곤갭 비율은 23.2%이었는데, 2005년에는 30.4%로 높아져 최근 빈곤의 심도가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신욱 외의 연구(2006)도 1996년 빈곤갭 비율이 2.82이었는데, 2006년에는 7.41로 높아져 최근들어 빈곤의 심도가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현주 외의 연구(2006)는 중위소득의 20-50%의 소득을 가진 빈곤가구를 일반빈곤층으로, 중위소득의 20%미만의 소득을 가진 빈곤가구를 극빈층으로 구분하여 빈곤의 정도를 비교하고 있는데, 극빈층의 비율이 1996년 전체 인구의 1.3%에서 2006년에는 7.5%로 지난 10년간 거의 6배 가량 증가하였음을 보여 준다.

욕구-소득비를 이용한 연구들은 빈곤의 정도를 대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0%이하인 집단과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0-100%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극빈층과 일반 빈곤층을 구분한다. 한국 노동패널을 이용한 구인회의 연구(2002)는 1998년 극빈층 비율은 전 인구의 8.3%이고, 일반빈곤층의 비율은 11.1%로 추정하고 있다. 이상록과 백학영의 연구는 수도권과 지방의 극빈층 비율과 일반빈곤층의 비율을 비교 분석하고 있는

데, 극빈층 및 일반빈곤층 비율 모두 수도권보다 지방이 높음을 보여 주고 있다(이상록, 백학영, 2009).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우리 사회에서 빈곤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빈곤의 심도도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서 우리사회의 빈곤층이 빈곤 정도에 따라 재분류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렇지만, 이러한 빈곤의 규모 및 심도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빈곤층이 빈곤정도에 따라 내적 구성이 상이한지 또는 동일한지와 관련한 심도있는 분석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빈곤의 결정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자.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빈곤 결정요인으로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노동 관련 특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로 연령, 교육 수준, 성, 혼인형태, 장애 및 만성질환 유무 등이 주로 지적된다. 이러한 변수들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에 따라 상이하다. 정진호 외의 연구(2002)는 도시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빈곤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에 빈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김안나(2007)의 연구는 남성 가구주에 비해 여성 가구주, 30세 미만보다 60세 이상의 노인가구주가 빈곤할 가능성이 높고, 미혼에 비해 기혼이 빈곤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김안나의 연구(2007)는 가구주가 만성질환이 있으면, 없는 경우보다 빈곤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교성, 최영의 연구(2006)는 근로자의 빈곤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HGLM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연령 변수는 빈곤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미혼에 비해 유배우자가 빈곤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가구주의 인구학적 요인이 빈곤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결과에 따라 상이하다.

기존연구들은 빈곤 결정에 영향을 주는 노동 관련 특성 요인으로 가구주의 취업형태, 가구주의 학력, 취업가구원 수 등의 변수들을 제시하고 있다. 취업형태 변수의 빈곤에 대한 영향은 연구에 따라 상이한데, 근로자의 빈곤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김교성과 최영의 연구(2006)는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 등이 빈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반해,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빈곤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윤홍식의 연구(2004)는 사별가구에 대해서만 비취업보다 상용직이 빈곤할 가능성이 낮아지며, 일용/임시직, 고용주/자영업 등은 비취업자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주의 학력 변수는

대체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빈곤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존 연구들은 밝히고 있다(김안나, 2007; 김교성, 최영, 2006; 정진호 외, 2002). 취업가구원 수 변수 또한 빈곤여부에 중요한 요인을 미치는 것으로 기존 연구들은 밝히고 있다. 취업가구원이 많을수록 빈곤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기존 연구들의 결과는 보여준다(정진호 외, 2002).

이처럼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빈곤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근로빈곤층이나 결혼해체 여성 등 인구학적 범주로 구분된 빈곤집단의 빈곤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반면 본 연구는 빈곤의 심도를 기준으로 하여 빈곤층을 극빈층과 일반빈곤층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빈곤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는 자료는 2006 한국복지패널 조사 자료이다. 2006 한국복지패널자료는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로 부터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가 구 30,000가구를 2단계 층화 집락 표집에 의해 추출하였고, 이들 가구 중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의 60% 이하)와 일반가구(중위소득의 60% 이상 가구) 각각 3,500가구씩을 층화집락계통추출을 통해 총 7,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실제 조사가 완료된 가구는 7,072가구이고, 이것이 분석에 사용된다. 2006 한국복지패널 자료에는 우리나라 전국 가구주 중 제주도를 제외한 섬, 기숙사, 특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가구가 실제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복지패널은 빈곤층 및 차상위계층의 규모와 상태변화를 동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 생산이 목적이므로, 소득계층별 경제활동 상태, 연령별 등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에 관한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2006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에 담고있는 정보는 소득과 같은 유량(flow)의 경우 2005년 1월에서 12월 간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재산과 같은 저장(stock)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2. 빈곤층의 분류

본 연구에서 빈곤 여부는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한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보다 적으면, 빈곤한 것이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보다 많으면, 빈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소득 개념은 시장소득이다.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농업, 자영업 등의 사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등의 1차소득에 사적 이전소득을 합한 것이고, 공적이전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박찬용 외, 2002).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는 모든 소득은 가구규모의 차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OECD의 가구균등화 지수를 이용하여 1인 균등화된 소득으로 전환하여 사용한다¹⁾. 따라서 빈곤여부에 대한 판단도 1인 균등화 소득으로 전환된 중위 시장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의된 소득개념에 근거하여 빈곤집단을 극빈층과 일반 빈곤층으로 구분하였다. 극빈층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25% 미만인 집단으로 정의하며, 일반빈곤층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25-50%에 이르는 집단을 말한다.

3. 주요 변수의 정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빈곤여부, 극빈여부 및 빈곤정도에 따른 집단구분이다. 빈곤 여부 변수는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1인 균등화한 시장 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으로 간주하고 1로 코딩하였으며, 비빈곤은 0으로 코딩한 비연속변수이다. 극빈여부 변수는 1인 균등화한 시장소득의 25% 미만을 극빈으로 간주하고 1로 코딩하였고, 비극빈은 0으로 코딩한 비연속변수이다. 빈곤정도에 따른 집단 구분 변수는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분석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하는데, 극빈층은 1로, 중위소득의 25-50%수준의 소득을 가진 일반 빈곤층은 2로, 비빈곤층은 3으로 코딩한 비연속변수이다.

독립변수는 <표 1>과 같이 가구주 성, 노인가구주 여부,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혼인상태, 가구규모, 가구주의 근로능력정도, 가구주의 취업지위, 장애 또는 만성질환 가구원 수, 취업가구원 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가구주 성 변수는 더미변수로 남성을 1,

1) OECD의 가구균등화 지수는 Y_i/\sqrt{n} 이다. Y_i 는 가구소득이고, n 은 가구원 수이다.

표 1. 주요 변수의 정의 및 측정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측정
종속 변수	빈곤 여부	중위소득의 50% 미만	빈곤=1, 비빈곤=0
	극빈 여부	중위소득의 25% 미만	극빈=1, 비극빈=0
	빈곤집단 구분	중위소득의 25% 미만은 극빈층, 중위소득의 25-50%는 일반빈곤층, 나머지는 비빈곤 집단	극빈층=1, 일반빈곤층=2, 비빈곤층=3
독립 변수	가구주 성	가구주의 성별	남성=1, 여성=0
	노인 가구주 여부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 그 외 비노인	노인가구주=1, 비노인가구주=0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의 교육수준	실제 교육연수로 측정. 연속변수
	가구주 혼인상태	가구주 혼인상태	1. 미혼, 2.사별, 이혼, 별거 3.유배우
	가구규모	가구원 수	연속변수
	가구주 근로능력	가구주의 근로능력 정도	1. 근로가능 2. 근로능력 미약, 3. 근로능력없음
	가구주의 취업지위	가구주의 취업상 지위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인구=1 임시/일용직/자활, 공공근로/무급가 족종사자=2, 자영업=3 고용주 및 상용직=4
	장애 또는 만성 질환 가구원 수	장애나 만성질환이 있는 가구원 수	연속변수
	취업가구원수	가구를 제외하고 가구원 중 취업자 수	연속변수

여성을 0으로 코딩하였으며, 여성을 기준집단으로 사용한다. 노인가구주 여부 변수 역시 더미변수로서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를 노인가구주로 정의하였고, 노인가구주를 1로, 비노인가구주를 0으로 코딩하였으며, 비노인가구주를 기준집단으로 지정하였다. 가구주 교육수준 변수는 연속변수로 가구주의 실제 교육연수로 측정하였으며, 가구주 혼인상태 변수는 더미변수로, 미혼 1, 사별, 이혼, 별거를 2,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3으로 변수값을 부여하였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기준집단으로 지정하였다.

가구규모 변수는 대상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로 측정하였고, 연속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가구의 근로능력 변수는 근로능력 있음을 1, 근로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2,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를 3으로 하여, 근로능력 없는 경우를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가구의 취업지위 변수는 가구주가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이면 1로, 임시직, 일용직, 자활이나 공공근로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일 경우 2로, 자영업은 3으로, 고용주 및 상용직은 4로 코딩하였으며, 기준집단은 고용주 및 상용직으로 설정하였다. 임시직, 일용직, 자활이나 공공근로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의 취업지위 범주는 임시직 또는 일용직이 전체의 97.8%를 차지하여, 이 범주의 거의 대부분은 임시, 일용직이라 할 수 있다. 장애 또는 만성질환 수는 가구원 중 장애나 만성질환이 있는 가구원 수로 측정한 연속변수이다. 취업가구원수 변수는 가구주를 제외한 가구원 중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가구원 수로 측정한 연속변수이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집단을 극빈층과 일반빈곤층으로 구분할 때, 두 집단간 내부 구성이 어떻게 상이하며, 두 집단의 빈곤결정요인이 어떻게 상이한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1차적으로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두 집단의 내부 구성을 비교, 분석하였고, 2차적으로 로짓(logit) 분석과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자료는 2006 한국복지패널 자료이다. 한국복지패널은 전체 조사가구의 50%를 저소득층 가구로 과대표집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모든 분석은 가중치를 부여한 후 이루어진다.

가. 기술통계분석

기술통계분석은 빈곤정도에 따라 구분한 극빈층, 일반빈곤층, 비빈곤층별로 빈곤율, 인구사회학적 특성, 노동 특성 관련 주요 변수들에 대한 빈도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 로짓 및 다항로짓 분석

본 연구에서 로짓 분석은 빈곤여부 결정요인 분석과 극빈여부 결정요인 분석에서 이루어진다. 빈곤여부 결정요인 분석모델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한 빈곤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앞의 <표 1>에 제시된 모든 독립변수를 투입한 모델이다. 극빈여부 결정요인 분석모델은 1인 균등화 중위 시장소득의 25% 미만을 극빈층으로 정의한 극빈층 개념에 근거하여 극빈층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앞의 <표 1>에 제시된 변수들이 모두 독립변수로 투입된다.

다항로짓 분석에서 종속변수는 극빈층, 일반빈곤층, 비빈곤층으로 3범주로 구분하여, 일반빈곤층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다항로짓 분석모델도 앞의 <표 1>에 제시된 변수들을 모두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모든 통계분석 SPSS for Windows 15.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이루어 졌다.

IV. 기술통계 분석 결과

1. 빈곤정도에 따른 빈곤율 비교

<표 2>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극빈층 비율 및 빈곤율을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 빈곤선은 1인 균등화한 중위 시장소득의 50%로 설정하였으며, 극빈층은 소득이 1인 균등화한 중위 시장소득의 25% 미만을 말하며, 일반빈곤층은 1인 균등화한 중위 시장소득의 25% 이상 50% 미만을 말한다. <표 2>를 보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빈곤율은 24.1%이고, 극빈층 비율은 11.8%이며, 일반 빈곤층 비율은 12.3%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리 사회의 빈곤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국민의 약 1/4이 빈곤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극빈층의 비율도 전체 인구의 10%가 넘고, 전체 빈곤인구의 약 49%에 이를 정도로 빈곤의 심도가 매우 깊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

(단위: %)

빈곤구분	백분율
극빈층 비율	11.8
일반빈곤층 비율	12.3
전체 빈곤율	24.1

2. 빈곤정도별 인구학적 특성 비교

<표 3>은 빈곤정도별 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가구규모를 빈곤정도별로 비교해 보면, 빈곤층과 비빈곤층간 가구규모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빈곤층 내에서도 극빈층이 일반빈곤층보다 가구규모가 조금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빈곤층의 평균 가구원 수는 약 2명인데 반해 비빈곤층의 가구원 수는 약 3명으로 비빈곤층이 빈곤층보다 가구원이 평균 1명 정도 더 많다. 빈곤층 내부를 보면, 극빈층은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비율이 75.7%로 일반빈곤층의 69.4%보다 그 비율이 조금 높다. 다음으로 가구의 성별을 빈곤정도별로 비교해 보면, 빈곤층이 비빈곤층보다 여성가구의 비율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빈곤층의 여성가구주 비율은 무려 37.1%에 달하는데 반해, 비빈곤층의 여성가구주 비율은 12.2%이다. 빈곤정도로 빈곤층을 구분해 보면, 극빈층의 여성가구주 비율이 일반 빈곤층보다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노인가구주의 비율을 빈곤정도별로 비교해 보면, 빈곤층이 비빈곤층보다 노인가구주의 비율이 훨씬 높다. 빈곤층의 노인가구주 비율은 52.8%인데 반해, 비빈곤층의 노인가구주 비율은 8.7%이다. 빈곤층 내에서는 극빈층이 일반빈곤층보다 노인가구주의 비율이 약간 더 높기는 하지만, 빈곤층과 비빈곤층간 비교처럼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가구주가 만성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비율도 빈곤층이 79.8%로, 비빈곤층의 38.8%보다 훨씬 높다. 빈곤층 내에서 가구주의 장애 또는 만성질환이 있는 비율을 보면, 극빈층은 83.6%이고, 일반빈곤층은 그 비율이 76.2%로 조금 낮다. 가구주의 혼인상태도 빈곤층은 비빈곤층과 비교하여 사별, 이혼, 별거 가구의 비율이 4배 정도 높고, 미혼이나 유배우 가구의 비율은 낮다. 빈곤층 내부에서는 극빈층이 일반빈곤층보다 사별, 이혼,

별거 가구의 비율이 2.4% 포인트 정도 더 높다.

이렇게 빈곤정도별로 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해 보면, 빈곤층과 비빈곤층간에는 인구학적 특성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빈곤층 내부인 극빈층과 일반빈곤층간에는 인구학적 특성에서 일정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현격하지는 않다.

표 3. 빈곤집단별 인구학적 특성의 분포

(단위: %)

구분	극빈층	일반빈곤층	빈곤층	비빈곤층	전체	
가구규모	1	35.6	29.8	32.7	12.1	17.1
	2	40.1	39.6	39.9	17.9	23.3
	3	13.6	14.3	13.9	23.7	21.3
	4	8.1	10.0	9.1	34.8	28.6
	5	1.8	4.8	3.3	8.9	7.6
	6	0.7	1.3	1.0	2.0	1.8
	7이상	0.1	0.1	0.1	0.5	0.4
	평균	2.03	2.25	2.14	3.19	2.93
가구주 성	남	61.7	64.1	62.9	87.8	81.8
	여	38.3	35.9	37.1	12.2	18.2
노인 가구주	노인	56.9	48.9	52.8	8.7	19.3
	비노인	43.1	51.1	47.2	91.3	80.7
가구주의 만성질환 /장애유무	유	83.6	76.2	79.8	38.8	48.7
	무	16.4	23.8	20.2	61.2	51.3
가구주 혼인상태	미혼	3.7	3.8	3.8	9.9	8.4
	사별, 이혼, 별거	43.3	40.9	42.1	11.1	18.5
	유배우	53.0	55.4	54.2	79.0	73.0

3. 빈곤정도에 따른 노동 관련 특성 비교

<표 4>는 빈곤집단별로 노동 관련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표 4>를 보면, 빈곤층과 비빈곤층간 노동 관련 특성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며, 빈곤층내에서도 극빈층과 일반빈곤층간 차이가 비교적 뚜렷함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를 보면, 빈곤층은 가구주가 실업자이거나 비경제활동상태

에 있는 비율이 61.6%인데 반해, 비빈곤층은 그 비율이 15.2%에 불과하다. 반면 빈곤층의 상용직 비율은 2.2%에 불과한데 반해, 비빈곤층의 그 비율은 42.4%로 무려 약 20배나 높다.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의 차이는 빈곤층 내에서도 빈곤정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타난다. 극빈층은 가구주가 실업자이거나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비율이 무려 76.1%에 이르고, 상용직으로 노동하는 비율은 1.2%에 불과하며, 임시직이나 일용직 형태로 노동하는 비율도 5.6%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빈곤층의 경우, 가구주가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가 47.7%로 가장 많지만, 극빈층보다는 거의 30% 포인트 낮다. 반면 임시, 일용직 비율은 21.5%로 극빈층보다 약 16% 포인트 높다.

취업자 수를 빈곤집단 간 비교해 보면, 빈곤정도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극빈층의 경우 취업자가 하나도 없는 가구의 비율이 무려 70.9%이고, 일반빈곤층은 그 비

표 4. 빈곤집단별 노동 관련 특성 분포

(단위: %)

		극빈층	일반빈곤층	빈곤층	비빈곤층	전체
가구주의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1.2	3.1	2.2	42.4	32.7
	임시일용직	5.6	21.5	13.7	23.1	20.8
	자활 및 공공근로	0.8	1.4	1.1	0.1	0.3
	고용주	0.3	0.3	0.3	4.4	3.4
	자영자	15.3	25.3	20.4	18.1	18.7
	무급가족종사	0.7	0.5	0.6	0.4	0.5
	실업자	6.8	4.9	5.8	2.5	3.3
	비경제활동	69.3	42.8	55.8	9.02	0.3
취업자 수	0명	70.9	39.1	54.7	6.2	17.9
	1명	18.4	42.1	30.5	51.5	46.4
	2명	10.1	17.5	13.9	35.4	30.2
	3명	0.6	0.8	0.7	5.3	4.2
	4명 이상	0.0	0.5	0.3	1.6	1.4
가구주 근로 능력	근로가능	38.0	60.9	49.7	94.0	83.3
	근로미약	51.3	32.8	41.9	4.8	13.7
	근로능력없음	10.6	6.3	8.4	1.2	2.9
가구주 학력	초등 이하	53.6	52.8	53.1	12.3	22.2
	중졸	11.7	14.2	13.0	11.2	11.6
	고졸	21.7	22.1	21.9	38.0	34.1
	전문대졸	4.2	2.7	3.4	8.9	7.6
	대졸 이상	8.9	8.2	8.6	29.6	24.6

율이 39.1%인데 반해, 비빈곤층은 6.2%에 불과하다. 반면 취업 가구원이 2명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극빈층은 10.7%, 일반빈곤층은 18.8%인데 반해, 비빈곤층은 42.3%로 빈곤층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가구주의 근로능력을 빈곤정도에 따라 비교해 보면, 빈곤정도에 따라 집단간 큰 차이가 있다. 빈곤층의 가구주는 근로가능한 비율이 49.7%이고,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가 8.4%인데 반해, 비빈곤층의 가구주는 근로가능한 경우가 94.0%이며,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는 1.2%에 불과하다. 가구주의 근로능력은 빈곤집단 내에서도 빈곤정도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극빈층의 가구주는 근로가능이 38.0%, 근로미약이 51.3%, 근로능력 없음이 10.6%인데 반해, 일반빈곤층은 근로가능이 60.9%, 근로미약이 32.8%, 근로능력 없음이 6.3%로 나타나 빈곤정도에 따라 가구주의 근로능력에서 크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구주의 학력을 빈곤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빈곤층과 비빈곤층간 학력 격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과 빈곤층 내의 집단 간 학력 격차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빈곤집단을 구분할 때, 가구주가 초등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가구의 비율은 극빈층이 53.6%, 일반빈곤층이 52.8%인데 반해, 비빈곤층은 12.3%에 불과하다. 반면 가구주의 학력이 전문대 졸업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극빈층이 13.1%, 일반빈곤층이 10.9%인데 반해, 비빈곤층은 38.7%로 현저하게 높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노동관련 특성은 빈곤층과 비빈곤층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빈곤층 내부에서도 극빈층과 일반빈곤층 간에도 그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V. 빈곤정도별 결정요인 분석

1. 극빈 여부 및 빈곤 여부 결정요인 분석 결과

<표 5>는 소득이 균등화 1인 중위시장소득의 25%보다 적은 사람을 극빈층으로 설정하고, 로짓분석을 통해 극빈층 여부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극빈층이 아닌 비극빈층에는 일반빈곤층 및 비빈곤층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인구학적 요인 중 유의수준 .05에서 극빈층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규모와 장애 및 만성질환 가구원 수 변수이고, 가구주의 성, 노인가구주 여부, 가구주의 혼인상태 변수는 극빈층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규모가 클수록 극빈층에 속할 가능성이 줄어들며, 장애나 만성질환 가구원이 많을수록 극빈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가구주 여부, 노인가구주 여부나 가구주의 혼인 상태 등의 변수들은 극빈층 여부에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존 연구들에서(정진호 외, 2002; 김안나, 2007) 빈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지칭되는 노인가구주 여부, 여성 가구주 여부, 가구주의 혼인상태 변수들이 극빈층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새롭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빈곤 여부의 결정요인과 극빈층 여부의 결정요인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노동 관련 변수가 극빈층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노동 관련 변수 중 유의수준 .05에서 극빈층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주 학력, 취업가구원수, 가구주의 근로능력,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변수 등 본 연구의 분석에 투입된 노동 관련 독립변수들 모두이다.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극빈층에 속할 가능성은 낮아지며, 가구주를 제외한 가구원 중 취업한 가구원이 많을수록 극빈층에 속할 가능성도 낮아진다. 가구주가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가구주가 충분히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도 극빈층에 속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현재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영향을 보면, 다른 독립변수의 영향을 통제할 때 가구주가 상용직에 종사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경우 극빈층에 속할 승산(odds)이 약 33.383배 더 높으며,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도 상용직에 종사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극빈층에 속할 승산이 약 4.045배 높고, 자영자도 상용직과 비교하여 극빈층에 속할 승산이 약 14.878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동 관련 변수들이 극빈층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요컨대 가구주의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한 가구원이 적을수록, 가구주의 근로능력이 충분한 경우와 비교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 극빈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가구주가 상용직에 취업하여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 자영자 또는 임시/일용직으로 취업한 경우에 극빈층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극빈여부 결정요인 분석결과

	B	Wald	df	Exp(B)
가구주 성 (기준: 여성)	.091	.335	1	1.095
노인가구주 (기준: 비노인)	.058	.274	1	1.059
가구주혼인상태 (기준: 유배우)				
미혼	-.344	2.009	1	.709
사별/이혼/별거	.082	.233	1	1.085
가구규모	-.158**	7.793	1	.854
장애나 만성질환 가구원 수	.392***	60.808	1	1.480
가구주 학력	-.046***	16.988	1	.955
취업가구원 수	-.993***	84.812	1	.370
가구주 근로능력 (기준: 근로능력없음)				
근로가능	-.380*	4.042	1	.684
근로능력미약	.135	.626	1	1.145
가구주 경제활동상태 (기준: 상용직)				
실업/비경활	3.538***	137.825	1	34.383
임시/일용직	1.618***	26.370	1	5.045
자영자	2.765***	82.608	1	15.878
상수	-3.694***	73.353	1	.025
-2LL	3310.867			

***p<.001 **p<.01 *p<.05

<표 6>은 소득이 1인 균등화 중위 시장 소득의 50% 미만인 사람을 빈곤집단으로 설정한 후, 로짓분석을 통해 빈곤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빈곤층에는 극빈층을 포함하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

분석결과를 보면, 유의수준 .05에서 빈곤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수는 노인가구주 여부, 가구주 혼인상태, 가구규모 그리고 장애나 만성질환 가구원 수 변수이고, 가구주 성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독립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노인가구주 가구는 비노인 가구주 가구와 비교하여, 빈곤할 승산이 72.5% 정도 더 높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극빈 여부 결정요인 분석에서 노인가구주 여부 변수가 극빈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과 비교된다. 또한 가구주 혼인상태 변수도 유의수준 .05에서 빈곤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유배우와 비교하여 미혼인 경우가

표 6. 빈곤여부 결정요인 분석결과

	B	Wald	df	Exp(B)
가구주 성 (기준: 여성)	-.053	.162	1	.948
노인가구주 (기준: 비노인)	.545***	31.496	1	1.725
가구주혼인상태 (기준: 유배우)				
미혼	-.447*	5.978	1	.639
사별/이혼/별거	.288*	4.330	1	1.334
가구규모	-.134***	10.332	1	.874
장애나 만성질환 가구원 수	.408***	95.405	1	1.504
가구주 학력	-.096***	88.278	1	.909
취업가구원 수	-.948***	158.262	1	.387
가구주 근로능력 (기준: 근로능력없음)				
근로가능	-.375	3.630	1	.687
근로능력미약	.088	.209	1	1.092
가구주 경제활동상태 (기준: 상용직)				
실업/비경활	3.034***	280.960	1	20.785
임시/일용직	1.827***	107.575	1	6.212
자영자	2.554***	207.802	1	12.864
상수	-1.790***	28.519	1	.167
-2LL	4550.171			

*** p<.001 ** p<.01 * p<.05

빈곤할 가능성이 더 낮으며, 사별/이혼/별거한 경우는 유배우와 비교하여 빈곤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극빈여부 결정요인 분석에서 가구주의 혼인상태 변수가 극빈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다. 또한 다른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가구규모가 작을수록, 장애나 만성질환 가구원이 많을수록 빈곤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극빈여부의 결정요인 분석결과와 동일하다.

다음으로 노동 관련 변수들이 빈곤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가구주의 학력, 가구주를 제외한 취업가구원 수, 가구주의 경제활동변수가 유의수준 .05에서 빈곤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가구주의 근로능력 변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독립변수의 영향을 통제할 때,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한 가구원이 많을수록, 빈곤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구주가 현재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경우에 빈곤할 승산이 약 19.785배, 임시/일용직인 경우는 빈곤할 승산이 약 5.212배, 자영자인 경우는 빈곤할 승산이 약 11.864배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빈곤여부에 노동 관련 변수의 영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의 극빈여부 분석결과와 유사하다. 단지 차이는 극빈여부 결정요인에는 가구주의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 비해 극빈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빈곤여부 결정요인에는 가구주의 근로능력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보면, 극빈여부와 빈곤 여부의 결정요인이 대체로 유사하지만,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인구학적 요인과 관련된 변수들에서 빈곤여부에는 노인가구주, 가구주의 혼인상태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극빈여부에는 이러한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관련 변수들의 경우 가구주의 학력, 취업가구원 수,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변수들은 극빈여부 및 빈곤여부에 모두 같은 방향으로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가구주의 근로능력 변수의 경우 극빈여부에는 유의미하지만 빈곤여부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은 극빈여부와 빈곤여부의 결정요인을 비교한 것이다. 빈곤층에는 극빈층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극빈층과 일반

빈곤층간 결정요인을 비교한 것은 아니다. 다음에서는 극빈층과 일반 빈곤층을 결정하는 요인이 어떻게 상이한지 다항로짓분석을 통해 살펴 볼 것이다.

2. 다항로짓 분석 결과

<표 7>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극빈층, 일반빈곤층, 비빈곤층으로 구분하고 일반빈곤층을 준거로 하여 극빈층일 확률을 추정한 다항로짓 분석 결과이다. <표 7>을 보면,

표 7. 일반빈곤층을 준거로 한 극빈층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결과

	B	Wald	df	Exp(B)
가구주 성 (기준: 여성)	.098.	311	1	1.103
노인가구주 (기준: 비노인)	-.299*	5.731	1	.742
가구주혼인상태 (기준: 유배우)				
미혼	.062	.043	1	1.064
사별/이혼/별거	-.115	.367	1	.891
가구규모	-.053	.669	1	.948
장애나 만성질환 가구원 수	.142*	6.098	1	1.152
가구주 학력	.005	.135	1	1.005
취업가구원 수	-.500***	16.162	1	.607
가구주 근로능력 (기준: 근로능력없음)				
근로가능	-.282	1.650	1	.754
근로능력미약	.112	.326	1	1.119
가구주 경제활동상태 (기준: 상용직)				
실업/비경활	1.088**	9.135	1	2.968
임시/일용직	-.394	1.130	1	.674
자영자	.440	1.482	1	1.553
상수	-.529	1.108	1	
-2LL	4370.500			

***p<.001 **p<.01 *p<.05

일반빈곤층 대비 극빈층일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유의수준 .05 기준)을 미치는 변수는 노인가구주 여부, 장애 또는 만성질환 가구원 수, 취업가구원 수, 가구주 경제활동상태 변수 중 실업/비경제활동 변수 뿐이다. 나머지 변수들인 가구주 성, 가구주 혼인상태, 가구규모 등의 인구학적 변수와 가구주 학력, 가구주 근로능력 변수, 가구주 경제활동 상태(임시/일용직, 자영자) 변수는 유의수준 .05에서 일반빈곤층 대비 극빈층이 될 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인가구주 가구는 일반빈곤층 보다 극빈층에 속할 승산(odds)이 비노인가구주 가구에 비해서 25.8%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노인가구주 가구가 비노인가구주 가구보다 일반빈곤층 대비 극빈층이 될 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으로, 일반적인 예상과는 상이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소득 개념이 시장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가구주 가구와 비노인가구주 가구간 사적 이전소득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8. 노인가구주 여부별 1인 가구 시장소득 및 사적 이전소득 비교(빈곤층 대상)

(단위: 만원/년)

가구 구분	가구소득		사적 이전소득	
	평균	중위	평균	중위
노인가구주	305.68	300.00	288.33	240.00
비노인가구주	253.21	219.83	188.65	60.08

<표 8>은 빈곤층에 속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가구주와 비노인가구주의 가구 1인 시장소득 및 사적 이전소득을 비교한 것이다. 또한 일반빈곤층 대비 극빈층의 결정요인에 크게 영향을 주는 변수인 취업가구원 수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취업가구원이 전혀 없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8>을 보면, 빈곤층 중에서 노인가구주 가구가 비노인가구주 가구 보다 평균 소득이 약 52만원, 중위소득은 79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두 가구간 사적 이전소득을 비교해 보면, 노인가구주 가구가 평균적으로 약 100만원, 중위소득으로는 약 180만 정도 비노인가구주 가구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시장소득 기준으로 보면,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노인가구주 가구가 비노인 가구주 가구보다 덜 가난한데, 그 요인은 사적 이전 소득의 차이에 기인한다.

또한 다른 독립변수의 영향이 동일할 때, 장애나 만성질환 가구원이 1명 증가하면, 일반빈곤층보다 극빈층에 속할 승산이 15.2% 증가하며, 취업 가구원이 1명 증가하면, 일반빈곤층보다 극빈층에 속할 승산(odds)이 39.3% 감소한다. 다시 말하여 장애나 만성질환 가구원이 많을수록, 취업가구원이 적을수록, 일반빈곤층보다 극빈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끝으로 일반빈곤층과 비교하여 극빈층일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의 경제활동상태 변수인데,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가구주가 실업자이거나 비경제활동상태에 있으면, 상용직에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일반빈곤층보다 극빈층에 속할 승산이 1.97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장애나 만성질환 가구원이 많을수록, 취업 가구원이 적을수록, 노인 가구주 가구가 아니며 가구주가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집단이 일반빈곤층보다 극빈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VI. 결론

본 연구는 빈곤정도에 따라 극빈층과 일반빈곤층으로 구분하고, 극빈층과 일반빈곤층의 내부 구성의 차이 및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2006 한국복지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기술통계 분석 및 로짓 분석, 다항로짓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 빈곤의 규모가 매우 크고, 빈곤의 심도 또한 매우 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빈곤선을 시장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하고, 극빈층을 중위소득의 25% 미만으로 정의할 때, 전체 빈곤율은 24.1%, 극빈층의 비율은 11.8%나 되었다. 빈곤인구는 전체 국민의 약 1/4에 육박할 정도로 빈곤의 규모가 크며, 극빈층의 비율도 빈곤인구의 거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극빈층의 규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의 빈곤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둘째, 극빈 여부와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부분적으로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극빈 여부와 빈곤 여부 결정요인에서 특히 상이한 요인은 인구학적 요인과 관련된다. 가구규모가 작을수록, 장애나 만성질환 가구원이 많을수록 극빈할 가능성이 높는데 반해, 빈곤 여부에는 노인가구주일수록, 미혼보다 유배우가 그리고 유배우보다 사별/이혼/별거 가구일수록, 가구규모가 작을수록 장애나 만성질환 가구원이 많을수록 빈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빈곤여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노인가구주 여부와 가구주 혼인상태 변수가 극빈여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관련 변수는 극빈 여부 및 빈곤 여부에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주의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가구원이 적을수록, 가구주가 상용직인 경우와 비교하여 실업/비경제활동상태이거나 임시/일용직 또는 자영자일 때 극빈할 가능성 및 빈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일반 빈곤층과 극빈층을 구별하는 요인은 노인가구주 여부, 장애나 만성질환 가구원수, 취업가구원수, 가구주경제활동상태 변수로 분석되었다. 그 외에 가구규모나 가구주 성, 가구주 혼인상태 변수 등의 인구학적 변수와 가구주 학력, 가구주 근로능력 등의 노동 관련 변수는 일반 빈곤층과 극빈층을 구별하는 유의미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가구주 가구는 비노인가구주 가구와 비교하여, 극빈층보다는 일반 빈곤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장애나 만성질환가구원이 많을수록, 취업가구원이 적을수록, 가구주가 상용직보다는 실업/비경제활동상태일 때 일반빈곤층보다 극빈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재 극빈층과 일반빈곤층을 구별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기존 빈곤연구에서 빈곤 결정요인으로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노인여부, 여성가구주 여부, 가구주의 학력과 같은 전통적인 빈곤 결정요인이라기 보다는 취업가구원수, 가구주의 취업상태, 장애나 만성질환가구원 수와 같이 현재 근로를 하느냐 안하느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수들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준다. 첫째 빈곤정책에서 장애나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면, 장애나 만성질환이 있는 가구원이 많을수록 극빈층에 속할 가능성도 높고, 빈곤층에 속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장애나 만성질환 가구원이 많을수록 일반 빈곤층보다 극빈층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빈곤층 및 극빈층에 속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 장애나 만성질환자임을 보여주는 것

이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빈곤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 장애인나 만성질환자라고 하겠다.

둘째, 빈곤정책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내지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빈곤 결정요인이나 극빈층 결정요인으로 취업가구원 수, 현재 고용지위 등 노동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가구원이 많을수록, 가구주가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 또는 임시직이나 일용직보다 상용직일 때 빈곤할 가능성 및 극빈층에 속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빈곤층 또는 극빈층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빈곤층 대상 일자리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빈곤정책으로 근로가능연령대의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노인가구주 가구보다 비노인가구주 가구에 속한 사람들이 일반빈곤층보다 극빈층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노인가구주 가구보다 비노인가구주 가구가 빈곤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난 것은 주로 가족들에 의해 지원되는 사적 이전소득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빈곤 노인가구의 경우 가족간 소득이전 등 사적 소득이전의 지원을 어느 정도 받고 있지만, 빈곤한 비노인가구의 경우는 사적 소득이전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은 근로능력있는 빈자들에게 대한 지원이 약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근로가능한 연령대의 빈곤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가 요구된다 하겠다.

손병돈은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평택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빈곤정책, 노인빈곤, 다문화가족복지 등이며, 현재 한국의 빈곤 및 불평등 요인, 다문화복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E-mail: bdson@ptu.ac.kr).

참고문헌

- 강신욱, 신영석, 이태진, 강은정, 김태완, 최현수, 임완섭(2006).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구인회(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 pp.82-112.
- _____ (2004). 한국의 빈곤, 왜 감소하지 않는가? : 1990년대 이후 빈곤 추이의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4), pp. 57-78.
- 구인회, 손병돈(2005).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1990년대 후반기의 변화추이와 변화요인, 한국노년학, 25(4), pp.35-52.
- 김교성(2002).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8, pp.113-149.
- _____ (2003).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원 구성과 분배구조의 변화, 한국사회복지학, 55, pp.181-204.
- _____ (2007).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추이와 원인에 관한 연구: 조세와 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를 포함하여. 한국사회복지학, 59(2), pp.143-170.
- 김교성, 최영(2006). 근로계층의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8(2), pp.119-141.
- 김안나(2007). 한국 근로빈곤층의 특성과 결정요인 분석. 사회복지정책, 29, pp.145-168.
- 박찬용, 강석훈, 김태완(2002). 소득분배와 빈곤 동향 및 변화요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석재은(2004).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2), pp. 167-194.
- 윤홍식(2004).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와 공, 사적 소득이전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56(2), pp.5-28.
- 이상록, 백학영(2009). 한국사회 빈곤구조의 지역편차 분석-수도권과 지방의 빈곤격차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0(4), pp.205-230.
- 이현주, 김미곤, 노대명, 강석훈, 손병돈, 유진영, 임완섭(2006). 우리나라 빈곤실태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진호, 황덕순, 이병희, 최강희(200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최현수, 류연규(2003).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동향 및 빈곤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pp.143-160.

홍백의(2005).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4), pp.275-290.

Comparison of poverty structures between the extreme and the general poor in Korea

Shon, Byong Don

(Pyeongtaek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compare poverty levels and structures of two different poor groups, the extreme and the general poor, and ultimately to analyze factors to determine the likelihood of being to the two groups. In order to achieve these purposes, the study, first of all, used '2006 panel study sample and divided the sample into three groups of the poor: the extreme poor, the general poor, the non poor, according to the median income. Secondly, the study performed a multinomial logit analysis to find out what factors affect people to be in one of three poor groups.

Results showed that, in terms of the market income, it was estimated that 24.1% of people is the poor and 11.8% of people was the extreme poor.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households with non-elderly householder, more disabled members and less employed members were more likely to be in the extreme poor than the general poor.

Keywords: The Extreme Poor, the General Poor, Multinomial Logit Analysis, Poverty Structure